



뉴저지 목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사랑-나눔' 모임인 '러브 뉴저지'는 13일 오후 6시 유영교회에서 '2020년 사모 격려의 밤'을 개최했다.

## 러브 뉴저지, '사모 격려의 밤' ... 사랑 · 존경 꽃폈네

뉴저지 목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사랑-나눔' 모임인 '러브 뉴저지'는 13일 오후 6시 유영교회(담임 장병근 목사)에서 '2020년 사모 격려의 밤'을 개최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목회자인 남편을 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사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러브 뉴저지'

나눔분과(위원장 백형두 목사)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러브 뉴저지에 속해 있는 교회와 단체들의 목회자들과 부부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목회자들은 동료 목회자들을 칭찬하고, 사모들은 목회자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은 고백들을 쏟아 놓았다. 사모들이

뭔가 힘든 이야기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사모들은 남편의 사랑에 감사해 했고, 남편들을 격려했다. 한 참석자는 “'사모 격려의 밤'이 아니라 '남편 격려의 밤' 같다”고 평했다. 만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장병근 목사가 인도했다. 찬양과 경배는 박지우 목사, 대표 기도는 한동원 목사, 설교는 김주헌 목사, 광고는 백형두 목사, 축도는 양춘길 목사, 만찬 기도는 김중윤 목사가 담당했다. 참석자들은 “백형두 목사 부부와 양혜진 목사가 담당하신 만찬을 위한 메뉴도, 테이블 세팅도 수준급이었다. 게임 진행을 맡은 박근재 목사의 사회 능력도 준프로급이었다.”며 감사해 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